15~17세기 族譜 간행의 추이와 성격

序跋文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재 제4회〕

權 奇 奭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 계보관념系譜觀念과 편보체제編譜體制의 변화[承前]

17세기 이후 편보체제 변화는, 외손 범위의 축소와 아울러, 동족 유대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지방 출신 동성同姓의 수록 노력, 그리고 독립적으로 발간된 여러 동성 족보의 통합, 신분·계층적으로 열등한 동족의 포용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손의 경우에는 전혀 수록하지 않거나, 일정한 대수를 제한하여 그 범위는 2~3대 범위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후기 족보의 일반적 관행과 같이 사위만을 수록하거나, 택상宅相, 즉 딸의 자녀(2대)까지, 또는 외증손(3대) 범위까지 수록하는 세 가지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외손을 배제하면서도 지방 출신의 동족을 포용하고자 하는 의식의 확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1603년의 창녕성씨 족보이다. 이 족보는 외손의 수록은 축소하면서도 그 동안 교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동족 여부조차도 논란이 있는 지방의 동일 성관을 한 족보에 통합 수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성문준成文濬(1559~1626)이 지은 서문의 내용에 따르면, 본관지인 창녕昌寧에 거주하는 성씨의 경우에도 '노상路上'과 '노하路下'의 구분이 있어서 서로 같은 시조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웠다. 성문준 본인은 노상의 창녕성씨로서 '중윤공中尹公'을 시조로 하고 있었는데, 고려중엽의 시중 성리成履를 공통조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창녕성씨, 즉 노하의 창녕성씨가 있어서 성문준이 '한양에서 만난 성판서成判書'는 후자였다는 것이다. 성문준의 종증조從曾祖인 성세정成世貞은 두 종류의 창녕성씨가 우연히 성관만 같을 뿐 같은 시조에서 나온 동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노상路上의 성씨만으로 '천례賤隷'까지 불러모아 대연大宴을 열었다. 그러나 성세정과는 3세대 이후의 인물인 성문준은 '중국에서는 동성일 뿐 본관이 달라도 원파源派를 가리지 않고 동족으로 대우한다'는 이유로 노하路下의 창녕성씨와 통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문준은 이렇게 확대된 동성 위주의 동족의식에 입각하여 외손의 수록은 손자대에 그쳤는데,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족보라는 것은 한 성족의 계통을 기록하는 것이어서 본디 타성이 뒤섞여서는 불가하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짓는 자는 외손과 지파를 많이 기록하여 여러 세대가 지나도 끊이지 않아서, 한 족보의 가운데 이성이 많고 도리어 동성이 적으니 이는 옛 뜻이 아니다. 나의 선인先人(작자의 부친인 우계牛溪 성혼成渾 : 인용자 주註)께서는 일찌기 남의 족보에 외파를 함께 적는 것을 보고서 나에게 '이것은 동방씨족지東方氏族志이지 족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그러하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본디 외성外姓을 중시하여 내외종內外從 간에 친친親親의 정이 심히 현격하지 않다. 만약 족보를 짓는다면 단지 외손 한 세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쳐도 오히려 가하다. 이제 외파의 기록은 손자에 그쳐 선지先志를 따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성을 섞어서 쓰는 것은 이미 보법譜法이 아닐 뿐 아니라 편질篇帙이 많아지고 검열檢閱에 방해가 될까 두려우니, 외보外譜에 별록別錄하여 비고備考하고자 한다.

분명히 족보는 성족姓族을 기록하기 위한 기록이며, 한 권의 족보에는 한 개의 성씨만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뚜렷이 나타나며, 그것을 '보법譜法'으로 삼아 후세 족보 편찬의 원칙으로 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문준이 표방한 '일보일성一譜一姓'의 관념은 동시대의 다수의 족보에서 '동성의 의리는 백세百世가 지나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표현하듯이 동성이면 곧 동족이라는 관념의 발로로서, '종서宗緖를 중시하고 소목昭穆의 열列이 분명하도록 한다'는 말처럼 부계적인 가계계승 원리와 친족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계보관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천례賤隷'로 지칭된 열등한 신분까지도 동족 유대의 범주에 넣은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3)소규모 족보의 통합과 별보別譜의 출현

상기한 동성同姓=동족同族이라는 의식에 따라 서로 다른 본관으로 분적分籍한 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서로 계보상 잘 연결되지 않는 동성동본의 계파를 가능한대로 망라하여 족보에 수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1605년의 연안이씨延安李氏 족보서를 지은 이광정李光庭은 이성자손을 다 실으면 번잡하기 때문에 후일로 미룬다고 하면서도, 서로 계보상 연결이 되지 않는 연안이씨의 3계파, 즉 이광정 본인의 선조인 이귀령李貴齡·귀산貴山의 계파, 이정구李廷龜의 선조인 이석형李石亨의 계파,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의 선조인 이숙기李淑琦·숙감淑瑊의 계파가 있음을 지적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이들 족보의 계파를 통합하여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혈연이 연결되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던 계보관념에서 혈연관계가 불분명해도 동성=동족으로 보는 계보관념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실제로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심지어 본관도 달리 사용하고 있던 동족의 계보기록을 통합하는 사례는 17세기 이후 다수 발견된다. 1605년에 성여신成汝信이 지은 '희득족보서喜得族譜序'에 따르면, 본인이 소장하던 '창산세보昌山世譜'는 영남에 거주하는 계파가 상세하고, 서울에 사는 진사進士 성달선成達善이 가지고 있던 족보는 서울 거주자가 상세하여, 같은 선조에서 갈라졌음을 확인한 후 통합을 모색하였다. 서로 다른 본관의 족보가 통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1617년의 □□완산최씨별보完山崔氏別譜□□의 발문에 따르면, 서로 조상이 같은지 알지 못했던 화순최씨와 전주최씨가 동족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본관이 동족으로 통합하고자 노력하는 현상은, 조선시대 문벌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명조와 현조를 받들지 못한 벽관僻貫이 저명한 성관으로 흡수되는 과정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강백년姜柏年이 서문을 쓴 □□전씨족보全氏族譜□□는 원래 환성歡城에 전씨가 많았는데, 그 지엽枝葉이 영호남에 산처하게 되어 서로 알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편찬자 전극형全克亨은 여러 친족과 의논하여 호중湖中의 제족諸族이 소장한 가보家譜를 모아서 편집했다고 한다. 1681년의 영양남씨 족보를 제작할 때에는 남씨에는 의령宜寧과 고성固城의 두 종宗이 있었고 보첩이 없어 소출한 계보를 고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 종인의 가승세첩家乘世牒을 서로 참고하여 세계의 내력을 고증하였다. 이유장李惟樟(1625~1701) 서문을 쓴 예안이씨禮安李氏 족보도 이전까지 계보가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던 전희全義의 족보와 예안禮安의 족보를 통합한 사례이다.

여러 방면의 계대 고증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계보상 연결을 확인하지 못한 동성에 대해서는 '별보別譜'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별보의 작성은 동성이면 곧 백세지친百世之親이라는 관념에 따라 계보관계나 동조同祖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동족으로 인식하는 관념의 소치로서, 동성친에 대한 광범한 계보 수록 노력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별보로 실리는 가계는 대체로 지방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한미한 인물들인 경우가 많다. 17세기 초반의 사례로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계파를 '해서망족海西望族'이라는 이유로 동족으로 인정하여 족보의 말미에 별보로 실어준 수양오씨首陽吳氏 족보(오숙吳翽[생몰년 1592~1634] 편찬)의 조치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강백년姜柏年(1603~1681) 서문을 쓴 전씨족보全氏族譜와 1682년에 간행된 태인허씨泰仁許氏 족보도 '세계가 선조에 달하지 못하는 자'는 보말譜末에 수록하는 별보 조치를 한 사례이다.

별보에 실린 인물의 출신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들을 수록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 쓴 '송씨별보서宋氏別譜序'에는 북관北關 지방의 송씨 자손을 별보의 형태로 첨부하게 된 경위를 기록하였다. 고참의故參議 송국택宋國澤이 인조대에 북관에 여러번 적거謫居한 까닭으로 송씨의 별파로서 북쪽에 있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1675년에 그 무리인 송중현宋仲賢과 송수문宋守文 등이 송시열에게 와서 문의하여 계보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북관에는 양파兩派가 존재하며 개중에는 편호編戶되거나 관례官隷가 된 부류도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미천한 계파가 저명한 인물의 가계에 편입하고자 노력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1685년의 □□진주강씨세보晉州姜氏世譜□□는 영남 종인의 가보家譜는 오류가 많아 수록하기도 곤란하고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여 뒤에 별록하여 '전의傳疑'하였다고 한다. 1693년의 사천목씨泗川睦氏 족보는 계파를 잃은 옹진甕津의 족친을 권말에 별록하였다. 이처럼 별보 처리의 증가는 족보 수록 인물의 지역 범위 확대와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족보가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는 지역적 범위뿐만 아니라 포괄하는 신분적인 층위層位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앞서 1603년의 창녕성씨 족보에서 천례賤隷의 신분에 놓인 사람도 동성간의 연회에 초청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같은 성관을 매개로 구현되는 동족의식은 때때로 신분 또는 계층의 존비尊卑를 뛰어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족보제작자가 동성을 가능한 한 폭넓게 수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동성동본이면서도 향리鄕吏이거나 상천민常賤民의 신분인 동족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경우에도 이들을 배제하기보다는 대체로 포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15세기 족보로 추정되는 광주안씨廣州安氏 족보서는 '공사천례公私賤隷 및 정해진 배우자 외의 출생자(서얼庶孽)와 같이 신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구별은 하겠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시한 예가 있고, '함양군삼성족보서咸陽郡三姓族譜序'(1481)에는 '편호지맹編戶之氓'까지도 친친親親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강백년姜栢年(1603~1681)이 서문을 쓴 전씨족보에서도 '이서吏胥의 천한 자'도 수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조선후기 족보에서 서얼의 경우 '서庶'자를 대대로 명시하여 '적파嫡派'와 '서파庶派'의 차별이 엄존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잘 나타나듯이, 동족 내에서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부계 혈통에 의한 동족의식'이 '신분적 동류의식'을 넘어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1604년의 덕산황씨德山黃氏 족보서에서는 동종同宗을 중시하기 위해 서얼과 맹氓(평민) 또는 이吏(이서층)가 된 자들도 기록하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외친外親과 인친姻親까지 무제한 수록하는 것은 '사족士族'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서얼과 평민, 이족吏族까지 수록하는 것은 '동종同宗'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양측적인 혈연의식과 부계적인 혈연의식의 기능을 분리하여 이해한 점이다. 즉 외손의 외손까지 무제한 수록하는 것은 동일한 사족층의 동류의식의 소산이고, 신분을 초월한 '동종同宗'의식은 사대부 계층 일반의 동류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안동권씨성화보□□와 같이 광범위한 내외손을 등재한 조선전기 종합보에는 혈연적으로 후예라 하더라도 미천한 계파나 현직향리계現職鄕吏系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부계 족보로의 변화가 사족층의 인간관계망을 '동일한 관직과 사회기반을 공유하는 동류신분층' 중심에서 '내부적인 차등은 있지만 동족의식을 공유하는 성족姓族 집단'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 족보서문을 통해 나타나는 편보체제와 계보의식이 변화하면서 족보에 수록되는 인물의 지역적, 신분적 층위와 저변이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분명히 유교적 예교禮敎가 확산되면서 종법적인 가족질서의 일관되게 강화되는 추세가 존재했다. 하지만 부계 의식이 강화되는 이면에는, 족보 기록이 족보소장자에게 갖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미 확대와 족보의 주된 편찬계층이었던 양반층의 인간관계망 변동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현상이 존재했다. 다음 장에서는 편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단순히 족보라는 책자의 형식이라는 틀을 넘어, 족보를 제작한 사람들의 실체와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